

수확기 농촌 인력 수급 총력 도, 6개 작물에 37만명 지원

전남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농촌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가을철 농촌인력 수급전망 및 인력지원 계획'을 세워 총력 대응에 나섰다.

중점관리 대상 농작업은 양파·마늘·겨울배추 정식, 가을배추·배·고구마 수확 등 6개 작물이다. 이 작물의 재배면적은 총 1만 9,371ha로, 농작업을 위한 소요 인력은 3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높은 작업 숙련도를 요하는 마늘·양파 정식과 배 등 과실 수확은 농가에서 전문 인력을 선호하고 있어, 전남도는 사설인력을 고용해 충당할 방침이다. 투입인력은 23만6,000명이며 총 소요인력의 62.7% 규모다.

가을배추와 고구마 수확 등 보통의 숙련도가 필요한 농작업은 도내 20개 시군 35개소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인력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농작업반 인력풀을 1,700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에 9월부터 10월 중 이뤄지는 희망일자리 사업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주산지 인접 시군의 중개센터 간 농작업반 인력 상호과견도 확대한다.

농작업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나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봄철 농번기에 이어 가을철에도 공무원과 지역 공공기관 임직원 등 2,000여 명을 일손돕기에 투입할 예정이다. 군부대와 대학생을 비롯해 시군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서도 3만9,000여 명이 일손을 보탬 전망이다.

앞서 전남도는 농촌인력의 한 축을 담당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기관 간담회, 시군 업무연찬

회를 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법무부를 통해 올해 총 289명의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농가 대상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외국인을 포함한 농촌인력이 작업환경이 좋거나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업 분야로 유출돼 농촌 일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과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 유유인력을 지속 확보해 인건비 안정과 인력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심상정 “광주,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지정”

“양당정치 종식, 다당제 책임 연정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8일 “광주를 시민의 시대를 선도하는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각국의 미래 리더들이 아시아 민주주의를 광주에서 배울 수 있게 만들겠다”며 “아시아 민주인권 공원과 아시아 미래 민주주의센터를 건립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고도화를 위한 국립 민주주의 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를 녹색 치유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를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 광주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지역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지역대학에 과감한 기술투자도 의료, 의료과학 분야 인재를 키우겠다”며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지원해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권력 다툼에만 유능한 승자독식 양당정치를 종식하고, 다당제 책임 연정을 통해 다원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중대 과제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단절해야 할 과거와 시민들이 맡기고 갈 미래만 있을 뿐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광주 시민들과 촛불 시민이 세운 정부이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권력만 준 게 아니고 지방 정부와 180석의 국회 의석도 불어줬다. 그러나 지난 5년 국민들로부터 받은 평가는 한마디로 ‘내로남불’ 정치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낳아주신 광주 시민들께서 천하 삼분지계를 만들어 달라. 저 심상정에게 34%를 주시면, 책임 연정을 구성해서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지역 정의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어렵다. 분발하려고 한다. 민주당과 함께 어렵게 만든 선거제도가 (민주당의) 위성정당 폭거로 무력화됐고 이게 위축됐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거지면서 10% 가까이 이르는 지지자들을 묶어 양당 체제를 종식하는 정의당의 시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전남도,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 오늘 개최

기업과 1대 1 매칭...사전예약 참가자만 입장 가능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채용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9일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에서 기업과 구직자 만남의 장이 될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전남도가 함께 주최하고, 전남일자리종합센터, 목포 고용복지+센터, 목포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주관한다.

박람회는 온라인 영상면접관, 오프라인 현장채용관을 운영해 전남지역 기업

25개 사와 구직 희망자의 일자리를 연결한다. 현장채용관에서는 중소기업 10개사가 일정보에 따라 1대1 면접을 한다. 영상면접관에서는 도내 조선사 등 15개 기업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면접을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한 참가자만 입장할 수 있으며, 50명 미만으로 운영한다.

참여를 바라는 구직자는 일자리통합정보망(job.jeonnam.go.kr)을 통해 신청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남일자리종합센터(061-281-1142)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 들어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2회 실시해 144개 기업에서 67명을 채용한 실적을 거뒀다.

최정은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경직된 채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오는 10월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박람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도민 아이디어로 전남 미래 설계한다

10월 18일까지 ‘행복 아이디어’ 공모

전남도는 도민과 함께 행복한 으뜸 전담을 설계할 ‘2021 도민 행복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탄소중립 실현,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특목 투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모집 기간은 9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공모 주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 대응 방안 ▲인구·청년·일자리 정책 ▲쉽고 바른 공공언어의 사용 확산 방안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등 4개 분야다.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제

안할 수 있다. 참여를 바라면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전남도청 정책기획관실 제1안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참여가 이어지도록 공모전 SNS 소문내기 이벤트,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 이벤트 등을 펼친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한다. 시상 내역은 ▲금상 1명 300만 원 ▲은상 1명 200만 원 ▲동상 2명 각 100만 원 ▲장려상 3명 각 50만 원이다. 기타 입선작도 소정의

부상품을 지급한다.

선정한 아이디어는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 공개하며, 보안 등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 전남도정 혁신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김기홍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도정 혁신의 시작과 끝은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이를 통해 전남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매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 도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

“디지털 미래교육으로 전남인재 양성”

김대중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 도교육감 출마선언

김대중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60·사진)가 내년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8일 선거준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2.0 사회의 분권화 시대에는 개인이 주인공이 된다”며 “이러한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디지털 미래 교육으로 전남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민·관·산·학이 협력해 이들의 진로를 책임지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현재 전

남의 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해마다 1,000여 명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구호에 그치는 혁신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미래 혁명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도교육감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한 것은 김 대표가 처음이다.

6년 동안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 대표는 장 전 교육감 ‘지지도’를 흡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장석웅 현 교육감과 양자 구도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최근 내년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70%에 달하고 장석웅 현 도교육감 지지도가 10%대에 머물러 선거 구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교인 목포북교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김 대표는 목포정명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됐으며 목포시의회장, 노무현재단 창립 운영위원,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나라 기자

M 전남매일 함께육아 캠페인

열정의 60년 더 나은 미래로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매년 7월 11일 **인구의날**